

‘성공적인 혁신문화 창조에 앞장’

포천칭찬 릴레이 교직원 표창장 수여식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2월20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포천교육 혁신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혁신유공자는 2007년 포천교육청 칭찬 릴레이를 통해 선정됐다.

최길용 교육장은 포천 관내 교직원들이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통해 포천교육을 혁신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칭찬 릴레이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포천칭찬 릴레이는 최길용 교육장의 제언으로 초등교원, 중등교원, 행정직 및 기능직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격주로 다음 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주자는 교육장이 선정하여 지금까지 15호 45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교직원은 포천교육청 홈페이지 및 청사 내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하여 홍보했다.

이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포천교육가족 모두가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 좀 더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문화를 창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표창장 수여식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포천교육가족의 사기를 제고하여 자기혁신으로 따뜻한 학교문화를 구축하려는 최길용 교육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희망포천교육 실현의지를 보여주었다.

표창장을 받은 한 교사는 “이번 칭찬 릴레이를 통해 칭찬 받는 게 속속스런 하지만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뿌듯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포천교육청에서 칭찬 릴레이



경기도포천교육청은 2월20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포천교육 혁신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칭찬주자에 대한 표창 시행으로 포천교육가족들의 정감 있고 따뜻한 직장문화 형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희망포천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 신입생 사전교육 행사 열어

대진대학교 2월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2월25일부터 27일까지 2008 신입생 사전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신입생 사전교육 행사는 25일 본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중앙행사를 시작으로 2박3일간 재학생과 신입생,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25일 오전 본교 체육관에서 모든 신입생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행사가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은 각 단과대학별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은 2박3일간의 수감생활, 리포트 작성법, 강의노트 작성법 등 신입생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배우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운데 중앙행사가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은 각 단과대학별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은 2박3일간의 수감생활, 리포트 작성법, 강의노트 작성법 등 신입생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배우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3명에게 2천650만원 장학금 지급

2008년도 동천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수동) 2008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2월20일 포천유림회관 2층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학교장, 이사, 감사, 수혜학생 및 전년도 수혜 장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대학 재학생 4명, 대학 입학생 6명과 고등학교 입학생 13명 등 모두 23명에게 대학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는 200만원씩,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50만원씩 모두 2천650만원이 전달됐다.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2008년도 장학금 수여식 이 2월20일 포천유림회관 2층에서 각급기관 단체장과 학교장, 이사, 감사, 수혜학생 및 전년도 수혜 장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강수동 이사장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우리지역의 인재양성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04년도부터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학과 학업을 성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과 훗날 지역을 빛내는 커다란 재목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천장학회를 더욱 내실 있는 모범적인 장학회로 발전시켜

나갈것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장학회는 2003년도에 동천 강수동 삼우석회 회장이 평소 장학사업에 뜻을 두고 사재 3억원을 출연해 장학회를 구성했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 허가 제2003-4호(2003.5.10)로 재단법인 동천장학회를 설립했으며, 2004년 2억원, 2006년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2006년 6억원의 자산을 갖춘 현실상부 한 장학회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I can do it



이해영 학생기자 / 송곡고교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가! 우린 언제나 많은 일들을 겪고 이겨내며 성공을 꿈꾼다. 어느 누가 성공을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라는 걸 문득 느꼈다.

무언가, 어딘가, 무엇에 의해, 어떤 일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려하다 결정 내려 행동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행동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세상은 내 중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항상 후회했다. 더 잘 할 수 있었다. 나는 더 많이 생각했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건 아닌가...

언젠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심하며 지난날을 후회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생각한다. 늘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결심의

생각으로.

하루를 마치면서는 이런이런 점을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일 대한 성공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언제나 웃을 수 없다.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강하게 이겨내야 한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은 언제나 슬픔과 아픔이 따랐다.

도망가고 싶었다. 내가 겪어내기엔 너무나 아팠고, 그만큼 슬픔 또한 너무 따랐다. 주저 않고 싶었고, 위로 받고 싶었고 매일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난 강해질 수 있었다. 내가 만약 이 아픔들을 안고서 힘 들어했다면 지금의 나도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함도 없었으리라.

이 넓고 약한 세상에 혼자만이 살고 있다고 느껴질때 마다 I can do it. 너무나 아파 쓰디 쓴 순간을 기리며 울때 마다 I can do it.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다 I can do it.

감히 말하고 싶다. 난 성공했다고.. 살아가면서 매번 생각했다. 돈을 많이 벌고 걱정 슬픔 없으며 하고싶은 일을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서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난 다시 말한다. 지금 난 성공했다고.. 내가 생각했던 진정한 성공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삶의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고, 악하고 아픈 세상에서 잘 견디고 있으며 날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환한 웃음과 행복을 주고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망설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할 수 있다. 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부딪쳐 봐야 알지 않겠는가. 미리 걱정하지 말자. 내가 실패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예비중학생반 무료교육 실시

송우초, 졸업후에도 집중교육에 나서



송우초등학교는 2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예비중학생반을 운영하고 있다.

송우초등학교(교장 강영숙)는 2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예비중학생반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식이 끝나면 가정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 생활지도는 물론 실력다지기를 위해 마련한 예비중학생반은 영어와 독서논술, 수학 등 3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송우초등학교 6학년으로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반 20여명씩 60여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원어민 교사(Ms. Wareham)와 영어전담교사(채진수), 대학생 멘토(차한일)등 3명이 학생 20여명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소수인원이 원어민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실력이 향상되고 발표를 통해 듣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 또한 학생들과의 나이차가 많지 않아 의사소통이 자유로워 영어실력 향상의 계기가 되고 있다. 수학(김선아), 논술(홍성우)등의 과목도 체계적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의 계기가 되고 있다.

양진영 지도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음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 인사

○教育長 任用 ▶경기도포천교육청 오정순 ○校長 重任 ▶포천 추산 홍삼선 ○招聘 校長 ▶포천 이곡 전준복 ○校監에서 校長 昇進 ▶포천 일동 이래경 ○獎學士 任用 ▶경기도포천교육청 김태석, 허기순 ○教師에서 校監 昇進 ▶포천 김대성 ▶포천 김연옥 ▶포천 김경임 ▶포천 류해남 ▶포천 류호천

▶포천 안영환 ▶포천 오선희 ▶포천 우환규 ▶포천 이흥희 ▶포천 정광진 ▶포천 정주철 ○교장승진 ▶포천일고등학교 이규승 ▶포천중학교 오성근 ▶송우중학교 윤오한 ▶일동중학교 배정환 ○교감진보 ▶일동고등학교 최규원 ○교감승진 ▶경기도포천교육청 권순조 ▶포천일고등학교 강원규 (이상 3월1일자)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㉑

曲禮에曰 毋側聽 하며 毋噉應 하며 毋淫視 하며 毋怠荒 하며 毋遊毋倨 하며 立毋跛 하며 坐毋箕 하며 寢毋伏 하며 斂髮毋髻 하며 冠毋免하며 勞毋袒하며 暑毋褻裳 이니라 (敝부르짚듯하고 거들림)髮 터럭발 땀따루 髻 디리체 髻 鬚(준))

곡례(曲禮)에 말하기를 “귀를 벽에 대고 엿듣지 말며 소리를 높여 대담하지 말며 걸음으로 흘려보지 말며 몸가짐과 동작을 게으르고 헤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걸어다닐 때 거만한 자세를 하지 말며, 설 때 몸을 한쪽다리에만 의지하여 기울게 서지 말며 앉을 때 두 다리를 뻗어서 키 모양으로 앉지 말며 잡다 때 엷드려 눕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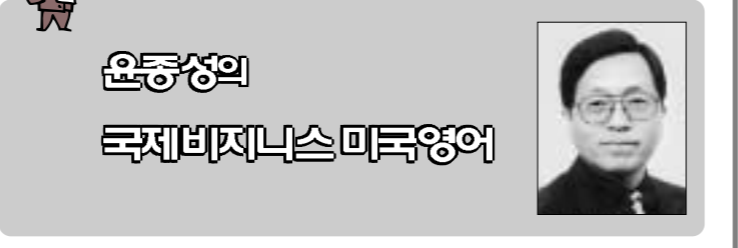
머리털을 거두어 싸매고서 늘어뜨리지 말며 관을 벗지 말

며 피로하더라도 땀의 소매를 걸어올리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이 글에서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바른 몸가짐을 논하고 있다. 몇 가지 일을 예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양주승 본지 지면위원

운동생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수업생 5. (대화) : (1) * <조언> : 천단위 이상을 말 하거나 들을때는, 마음속으로 세자리(000,000)씩 끊어서 앞자리 수를 인식하는 습관을 익혀야 유리하다.

* 이 집을 얼마에 사셨습니까? 하우머쉬 디주페이 휘디스하우스? <How much do you pay for this house?>

* 23만 불 주었습니다(\$230,000) 투한드렛머리 파우센달라스 <Two hundred thirty thousand Dollars.>

* 한화로 2억 원이 조금 넘는군요 잇서리틀오버 투한드렛머리인스 윈 <It's little over two hundred thirty millions Won.>

* 대지가 일만 평방 휘이 인데요 더랜스 덴파우센 스퀘어휘이 <The land is ten thousand square feet.>

* 한국 시가의 거의 절반이군요 잇서바우러합후 대를후코리아 <It's about a half that of Korea.>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olyon@nate.com

심리상담 ㉑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새 학년에 들어가 적응을 잘 할까?' 입니다.

특히 1학년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라면 그 걱정은 더욱 커지죠. 지금까지 유치원에서는 화장실만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었고, 대집단 활동시간에 자리를 떠나 돌아다니는 것도 특별히 혼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40분이라는 수업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 등은 제재가 가해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아이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우리아이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하는

학교적응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 ①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다른 곳에 주의를 팔기 전까지의 시간을 체크해 두어 공부할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5분은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면 5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부시간을 5분 단위로 나누시고 쉬는 시간을 약 1분 정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쉬는 시간을 너무 오래 계획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는 시간은 공부시간의 약 5분의 1정도로 짧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의집중 시간에 맞게 공부해야 할 분량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집중 시간은 5분인데 분량과 목표를 지나치게 방대하게 세우면 실재할 확률이 높아지고, 분량에 아이들은 지치며, 반복되는 실패로 아이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단위로 시간을 나누는 것은 아이에게 성취감을 높여주며, 공부를 위한 시간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공부를 하는 장소를 따로 정해 두고 그곳에서만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부방이 있다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 가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이의 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용하며 적절한 조명 이 있고 통풍이 잘 되고 주변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